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문 관

2011년 8월

MBTI 성격 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도교수 김성봉

김문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김문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MBTI 성격유형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김 문 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비행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해나가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BTI 네 가지 성격지표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MBTI 네 가지 성격기능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셋째, MBTI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법원에서 위탁의뢰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로는 Jung의 심리 유형론에 근거로 Myers와 Briggs가 만든 MBTI(GS)와 Folkman과 Lazarus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양식 척도를 기초로 하여 비행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네 가지 척도와 네 가지 성격 기능과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ESTP형, ESTJ형, ESFP형, ISTP형 순으로 높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표준화된 한국판 MBTI검사에 나타난 비율과 비교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할 수 있다. 이는 표준화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판 MBTI검사와 다르게 비행청소년 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ESTP, ESTJ, ESFP, ISTP 유형이 전체 비율중에서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MBTI의 네 가지 성격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각 성격지표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각 성격지표별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과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 상황을 바람직한 상황으로 생각하여 대처하려는 소망적사고 대처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MBTI의 네 가지 성격 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격기능에 따라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에서 소망적 사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MBTI의 네 가지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질에 따라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에서 소극적 대처의 소망적 사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네 가지 성격 기능에 있어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네 가지 기질에 있어서는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소망적 사고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각 성격기능과 기질에서 소망적 사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청소년기와 문제행동	4
2. MBTI 성격유형	7
3. 스트레스	12
4. 선행연구	1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절차	21
3. 측정도구	22
4. 분석방법	23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5
1. 네가지 성격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25
2. 네가지 심리적 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28
3. 네가지 기질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29
V. 논의 및 결론	31
참고문헌	36
Abstract	39
부 록	42

표 목 차

<표Ⅱ-1> 보호소년 연령층별 인원	5
<표Ⅱ-2>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6
<표Ⅱ-3> 소년범죄자 공범 현황	6
<표Ⅱ-4> MBTI 네 가지 성격지표	8
<표Ⅲ-1> 연구대상	21
<표Ⅲ-2> 스트레스 대처방식 신뢰도 검증	23
<표Ⅲ-3> 연구대상자의 16가지 성격유형 분포	24
<표Ⅳ-1>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25
<표Ⅳ-2> 감각형(S)과 직관형(N)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26
<표Ⅳ-3> 사고형(T)과 감정형(F)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27
<표Ⅳ-4>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28
<표Ⅳ-5> 심리적 기능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석	28
<표Ⅳ-6> MBTI의 기질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석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압력이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아정체감 혼미(identity confusion)에 빠지게 되며 사회적 인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 즉 스트레스란 개인으로 하여금 부조화감과 불만족을 경험케 함으로서 자신과 외부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여부가 청소년 성장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성장은 이러한 갈등과 좌절의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것은 이들의 적응 및 성장지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달리 비행이나 정신 병리와 같은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서 청소년기 비행이 보통 12, 13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스트레스와 관련지어 청소년문제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청소년들 앞에 놓인 이러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간구하여 적절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과 더불어 각 개인차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각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일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속에서 적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차가 있는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발달의 과정을 걸치면서 다양화되고 세분화된다. 이러한 특성 중 성격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고

숙경(1994), 최여원(1994), 김세영(1999), 김원예(2001), 황정옥(2001)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적 요인 보다 개인 특성 관련 요인이 비행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성격요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과 성격유형의 관계를 논하는 이유는 비행을 성격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관심에서 뿐만 아니라, 비행의 예방과 통제라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 것이다(심혜숙·김명권, 1998). 또한 개인의 선호경향성은 비행청소년의 행동을 해석하고 비행위험요인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예측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볼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MBTI 성격유형은 이들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 즉 이들의 선도와 교육 그리고 효율적인 분류를 통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Eysenck(1974)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비행과 성격간의 관계를 연구해 왔으며, MBTI에 나타난 어떤 성격유형들은 청소년들의 독특한 특징이나 행동들 그리고 비행등과 연관되어 설명되어져 왔다(Keirse & Bates, 1978).

한편으로 비행청소년들의 다양한 성격유형과 더불어 국내에서 비행청소년 대상의 MBTI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김숙영(1994)은 ‘성격과 다른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폭넓게 비행의 요인들을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나의 변인으로 보았다. 스트레스 대처능력 변인과 관련하여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 나아가서 사회적 안녕과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적응적 결과에 차이를 주는 것은 스트레스 개념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임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온 가운데, 다양한 성격유형 이외의 여러 심리 사회적인 영역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다른 성격유형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아는 것은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어떤 성격유형을 어떤 행동특성에서 더 보완하고 도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역동으로서의 스트레스의 개념을 근거로 현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 적응적 요구에 따른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가를 밝혀줌으로서 비행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을 효과

적으로 지도해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 탐색을 위해 다양한 성격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Jung의 심리유형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MBTI를 사용하여 각 지표, 기능,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비행청소년의 MBTI에 나타난 다양한 성격 특성들에 따라 이들의 대표적인 행동 특성들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MBTI 지표, 기능, 기질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MBTI 네 가지 성격지표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1. 네 가지 성격지표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MBTI 네 가지 성격기능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2. 네 가지 성격기능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3. MBTI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3. 네 가지 기질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와 문제행동

청소년이란(Adolescence)이란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단계에 있어서 청소년과 부모의 의존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기의 중간에 위치한 시기로 과도기적 사춘기의 연령층을 말한다(김제한, 1980, p.13).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이다. 청소년기는 영아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 성인과 같은 성욕이 출현하며,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도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심리적 갈등이나 행동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잘 적응하여 유능하고 건강한 개인으로 발달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부적응하여 문제행동을 보이며 정서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성인기까지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이상행동으로는 크게 우울, 불안, 정신병으로 대변되는 '심리적 장애'와,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동문제'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학업 및 진로문제, 대인관계문제 등은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행동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청소년대화의광장, 1998).

선행연구에서는 학업 및 진로와 같은 청소년기 대표적 발달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문제영역, 대인관계문제 영역, 품행문제 영역,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같은 생활습관문제와 섭식문제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이와 같은 청소년기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비행이란 도덕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나 비행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p.238).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최근의 특성을 밝힌 홍봉선(2009)은 청소년 비행의 최근 동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가.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의 첫 번째 특성은 저연령화로서, 이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건수와 범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표 II-1>에서 제시된 법원의 보호소년 연령층별 인원을 통해 촉법소년의 범죄 발생건수 및 범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1> 보호소년 연령층별 인원

연령 연도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2003	22,569	2,679(11.9)	5,787(25.6)	9,249(41.0)	4,854(21.5)
2004	19,958	2,458(12.3)	5,633(28.2)	8,276(41.5)	3,591(18.0)
2005	21,135	3,417(16.2)	6,403(30.2)	7,991(37.8)	3,324(15.7)
2006	20,241	3,175(15.7)	6,594(32.6)	7,596(37.5)	2,876(14.2)
2007	26,874	4,104(15.3)	8,940(33.3)	10,176(37.8)	3,654(13.6)

자료 : 대검찰청

법원의 보호소년 중 14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는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원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청소년범죄의 재범화

청소년 범죄의 경우 비행발견 초기에 개입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 없이 단순한 귀가조치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능력이 결여 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한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의 개선도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조치는 재 비행으로 연결되기 쉬우며, 청소년비행을 근절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재비행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소년범죄자 전과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합계	초범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2	115,423	71,662(62.1)	18,326(15.9)	9,036(7.8)	5,046(4.4)	8,742(7.6)
2003	96,085	61,025(63.5)	14,751(15.4)	7,263(7.6)	4,106(4.3)	6,893(7.2)
2004	72,770	44,267(60.8)	11,187(15.4)	5,227(7.2)	3,138(4.3)	4,984(6.8)
2005	67,478	42,017(62.3)	9,307(13.8)	4,601(6.8)	2,672(4.0)	8,881(13.2)
2006	69,211	44,236(63.9)	9,193(13.3)	4,124(6.0)	2,428(3.5)	9,230(13.3)
2007	81,090	55,543(68.5)	11,540(14.2)	5,332(6.6)	3,090(3.8)	5,585(6.9)

주 : 1. 미결은 제외, 2. ()안은 분석백분율

자료 : 2008 범죄백서, 대검찰청

다. 청소년범죄의 집단화

청소년범죄의 집단화(集檀化) 경향은 청소년의 집단화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집단화는 청소년이 가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자기와 비슷한 또래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이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을 통해 자기 욕구를 실현하려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역시 <표 II-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범행보다는 공동범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 소년범죄자 공범 현황

연도	계	단독범	공범	미상
2003	95,085	45,530	47,647	1,908
2004	72,770	31,348	36,702	4,720
2005	67,478	26,528	35,861	5,089
2006	69,211	27,248	36,485	54,78
2007	88,104	36,439	43,991	7,67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08년 자료

2. MBTI 성격유형

가. 융(Jung)의 성격 유형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Jung(1875~1961)은 인간이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며, 판단한 것을 다르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개인마다의 일관된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보았다. 즉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선호방식에 따라 인간의 성격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은 정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아들이거나 반응하는데 있어서 저마다의 선호하는 방식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Jung의 심리유형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인 내부에는 일정한 일관성과 질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1995, p.72).

Jung은 심리유형론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따르는데, 외적 자극은 정신에 끊임없는 자극을 일으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Jung은 이 에너지를 “libido”라 불렀다. Jung이 말하는 “libido”란 욕망, 공복, 갈증, 성욕 등으로 Freud의 libido와는 다른 개념이다. Jung은 성격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2가지의 태도(외향성과 내향성)와 4가지의 심리학적 기능(감각, 직관, 사고, 감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Jung(1959)의 심리유형론의 특징은 심리적 경향의 역동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즉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이 지니는 구조간의 동적 관계를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이는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 정신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의 기능으로 분류한다.

나. MBTI의 개념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 G. Jung의 성격유형이론을 근거로 C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1941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인간이해를 위한 성격유형검사이다.

MBTI는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유형지표(Type Indicator)로써, 외향성-내향성(주의집중과 에너지 방향), 감각-직관(정보수집과 인식방법), 사고-감정(판단과 의사결정 과정), 판단-인식(행동이해와 생활양식) 지표 중 각 개인이 선호하는 네 가지 지표로 표시되어 각자의 성격적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정택·심혜

숙, 1991).

MBTI는 융의 심리유형론에 판단(J)과 인식(P) 지표의 기능을 더욱 확장시켜 네 가지 선호지표중 하나의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융의 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1) 4가지 기본적인 정신적 기능(과정)

심리 유형에 대한 융의 포괄적인 이론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감각(sensing, S), 직관(intuition, N), 사고(thinking, T), 감정(feeling, F)이라 불리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적 기능 또는 과정을 사용한다. 인간은 이 네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매일 사용할 때 어떤 태도냐에 따라 외향성(Extraversion, E)과 내향성(Introversion, I)으로 나누어지며,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판단(Judging, J), 인식(Perception, P)의 선호경향을 가지며 이것을 전체적인 표로 나타내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M.B.T.I의 네 가지 성격지표

지표	선호 경향	지표
외향-E (Extraversion)	· 정신 에너지의 방향 · 인식과 판단이 주로 외부세계(E)로 향하는가? 또는 주로 내부세계(I)로 향하는가?	내향-I (Introversion)
감각-S (Sensing)	· 정보수집, 인식기능 · 인식하려고 할 때 어떤 종류의 인식을 선호하는가?	직관-N (iNtuition)
사고-T (Thinking)	· 판단기능 ·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종류와 판단을 더 신뢰하는가?	감정-F (Feeling)
판단-J (Judgement)	· 삶의 패턴, 생활양식 ·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판단적 태도를 취하는가? 또는 인식적 태도를 취하는가?	인식-P (Perception)

자료 : 김정택(2003).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이와 관련하여 Jung의 심리유형이론의 요점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 가지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한다. 그의 심리유형이론의 특징은 심리적 경향의 동적인 관계를 중시하는데 있다. 인간정신의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감각(Sensing)기능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심리기능으로서 지각(Perception)과 거의 같은 뜻으로 감각기능은 의식적 지각이며 직관기능은 거의 무의식적 지각과정이다.

○ 직관(Intuition)기능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심리기능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육감으로 현상 너머의 가능성과 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으로, 본능적 파악의 능력이다. 직관적 인식은 직접 지각이므로 확실성을 지닌다.

○ 사고(Thinking)기능

주어진 관념내용을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기능으로 사고의 원천이 주관적일때는 내향적 사고형이 되고 객관적인 원천을 판단근거로 사용할 때는 외향적 사고형이 된다.

○ 감정(Feeling)기능

전적으로 주관적인 과정으로 주관적인 가치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관념내용을 연관시킬 때 주로 주관적 가치에 따라 연결시킨다.

2) 기능과 기질

심리유형에 대한 Jung의 포괄적인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은 누구나 감각(Sensing) 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 감정(Feeling)이라 불리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적 기능 또는 과정을 사용하며 누구나 이 네 가지의 본질적인 기능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또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태도(외향성·내향성)를 취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1995).

네 가지 유형이론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한 기능이 주기능이 되며 이는 우리의 성격을 배로 표현한다면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때 나머지 기능들을 부기능이라 하며 주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

Jung은 여러 해 동안의 임상관찰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발견했으며 이 네 가지 기능이 서로 관련되거나 하나로 합쳐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유형이론에서는 인간의 인식적인 정신활동이 아무리 다양해도 결국은 이 네 가지 기능 중 하나에서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Jung이 제시한 네 가지 기능

은 일종의 지향기능으로써 이 기능을 다양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반응케 하는 특정 정신활동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식기능(SN)과 판단기능(TF)은 마음의 기능이라 부르며 심리적 기능에 근거하여 ST, SF, NF, NT 네 가지 기능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질유형이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형태이며, 서로 다른 힘들이 통합되어 전체적으로 채색되거나 조율되는 것으로 다양한 행동들이 일관성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개인의 가시적인 여러 행동 속에 내재하는 일관된 패턴으로써 행동 속에 나타나는 지문과 같다.

기질유형은 주 기능과 부 기능의 조합으로 네 가지 기질(SJ, SP, NF, N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네 가지 심리적 기능

MBTI의 성격도표에서 종렬의 네 집단이 있는데 인식(S와 N)과 판단(T와 F)의 배합에 따라 감각적 사고형(ST), 감각적 감정형(SF), 직관적 사고형(NT), 직관적 감정형(NF)의 네 가지 심리적기능형으로 구분이 된다.

ST(감각적 사고형)은 실질적 사실적 유형으로서, 인식할 때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는 주로 사고를 사용한다. 사실에 관심을 두며, 감각(보고, 듣고, 만지고, 세고, 무게를 재고)을 통해 수집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수집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SF(감각적 감정형)은 동정적 우호적 유형으로서 ST와 마찬가지로 인식할 때 주로 감각을 사용하나 판단할 때는 감정을 선호한다. 이 유형은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의 온정을 바탕으로 한다.

감각과 감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동정적이고 우호적이다. 그래서 물건판매, 친절한 서비스업, 교직, 간호 환자를 돌보는 보건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NF(직관적 감정형)은 열정적 통찰적 유형으로 SF형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때 감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온정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인식할 때는 감각보다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가능성을 발휘하는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통찰력이 있고 정열적이다. 그들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분야는 교직과 같이 사람에게 대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와 무형자원의 판매, 상담, 집필, 연구 등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NT(직관적사고형)은 NF형과 마찬가지로 인식할 때 주로 직관을 사용하며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이론적 관계, 추상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논리를 발휘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분석해나간다. 가능성, 이론적 관계, 추상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4) 네 가지 기질

우리들의 몸에는 타고난 본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C. G. Jung은 심리학적 용어로 심리학적 게임의 흐르는 기질이라고 보았으며 기질적인 특징이란 개인의 가지적인 여러 행동 속에 내재하는 패턴의 일관성을 의미한다(배영미, 2001, p.49). 즉 기질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서명을 하거나 지문을 찍어 놓은 것 같이 그 사람의 흔적을 알게 하는 일관적인 패턴이다. D. Keirsey는 다양한 문화와 시대, 역사에 걸쳐 존재한 4가지 다른 기질들이 모두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성격유형의 네 가지 결정체를 인간이 역사를 통해 숙고해온 네 가지 기질과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으며, 네 가지의 결정체를 SJ, SP, NF, NT형으로 구분하였다.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고 중요한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나 같은 기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며 각 기질에 속하는 사람들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외향적 혹은 내향적, 사고적 혹은 감정적, 판단적 혹은 인식적 등 다른 선호들로 인해 각각 다른 성격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문에서는 SJ기질을 책임과 성실이 특징인 보호자적 기질로, SP기질을 기쁨과 자유가 특징인 장인예술가적 기질로, NT기질을 지식과 탐구가 특징인 합리적 기질로, NF기질을 사랑과 열정이 특징인 이상가적 기질로 보았다.

SJ(보호자적 기질)은 현실적 의사 결정자형으로서 외부행동에서는 판단기능을 사용하나 내부세계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사실(S)에 초점을 맞춘다. SJ형은 환경에서 질서 정연한 것을 추구하고, 조직적이고 신뢰할만하고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

SP(장인 예술가적인 기질)은 순응적인 현실주의자형으로서 순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자기 주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또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잘 순응해 나갈 줄 알며 직접적인 상에 대해 잘 관찰한다.

NT(합리적 기질)은 내적인 비전을 통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며, 추진력이 있고 완고하며 확고부동하다.

NF(이상가적 기질)은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찾는다.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에도 잘 순응해나가며 인습에 얽매어 있지 않는다. 또한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분방한 정신의 소유자들이다.

3. 스트레스

가. 스트레스 개념정의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그 개념이 체계적이거나 과학적인 사용보다 앞서 사용되어 왔다. 이미 14세기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고난, 곤경, 역경, 또는 고통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7세기 말에는 Hook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물리학의 맥락에서 사용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서 체계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박장순, 2001, p.18).

현재까지 스트레스 개념 정의는 학자들의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거나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우리의 성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보기 보다는 적절한 요구 충족을 위한 동기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장연집, 박경, 최순영, 1997, p.145).

이와는 달리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과 비행은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으로부터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다양한 생활국면에서 경험하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동문제를 예언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현미현·유안진, 1996).

특히 부정적 생활사건들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으로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유발 요인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생활사건과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ompas et al., 1989; Dubow & Tisak, 1989).

또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며, 특히 동성친구 및 교사와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았다(이은주, 1998, p.126).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란 일상생활에서 개체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위기라고 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를 심리적인 입장에서, 개인과 환경과의 갈등으로 간주하는 모형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모형, 반응로서의 스트레스 모형, 자극과 반응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모형 등 세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1)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존재로 인간과 동물을 묘사하여 했던 최근까지의 심리학적 전통 속에서 심리학자들이 내린 가장 상징적인 스트레스 정의는 그것이 하나의 자극이라는 것이다(김정희, 1977).

또한 Lazarus와 Cohen(1979)은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적 사건들의 스트레스 자극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다수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로서, 자연재해와 함께 전쟁, 강제이주 등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 낸 재난이 포함된다.

둘째로, 한·두 사람 정도의 소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로 한사람이나 비교적 소수의 사람에게 격변과 다른 재앙적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영향 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서 사건의 부정적인 위력이 결정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나 무능력하게 만드는 질병, 직장에서의 해고와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혼, 출산등과 같이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사건일 수도 있다.

셋째로 일상적인 문젯거리(daily hassles)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생활 속의 역할을 수

행할 때 일어나는 훨씬 덜 극적인 스트레스적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들은 직장
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든지, 가족구성원과의 말다툼으로 짜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문젯거리가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변화보다는 훨씬 덜
극적일지라도, 적응과 건강 면에서는 이들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Holmes와 Rahe(1967)에 의해 사회 재적응
척도(SRRS)를 개발하여, 각 생활 속의 사건에 따라 다른 비중 점수를 할당하여 생활
변화단위(LCU)의 숫자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위기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
았다.

생활사건을 스트레스로 보는 이론은 하나의 생활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
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자극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아, 생활 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의미를 갖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의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최해림, 1986).

2)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Selye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어떤 것이든 그 요구에 응하는 신체의 비특유적 반응”
이라고 정의 내리고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다(박선영, 1993,
p.3). 또한 스트레스를 개인의 내부·외부적 자극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으로 보고 “일반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ion Syndrome : GAS)”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이론을
공식화 하였다.

Selye은 인간이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생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설명하
면서 경계반응기(alarm reaction stage), 저항기(resistance stage), 소진기
(exhaustion stage) 3단계로 나누었다. 경계반응기는 유해한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생
리적 반응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단계이며, 저항기는 위협에 대항하여 적당 수
준 이상의 신체적 적응으로 위궤양, 고혈압, 만성적 불안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소진기
는 환경의 변화가 없음에도 유기체의 적응자질이 모두 소진하여 신체적 반응이 약해지
는 단계이다. 적응자질이 모두 소진되면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결과로 나타난다.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보는 모형연구는 자극들 중, 유해한 자극과 그러한 자극에 노
출되어 있는 개인의 신체적인 기능과 생리적 기능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변화와의
상관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주로 유해한 자극과 신체 생리적 기능의 변화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적응과 생리학, 신경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이미숙, 2003).

그러나 스트레스 자극과 신체적 반응 사이에는 단순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등반되는 심리·사회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비평을 받는다.

3) 상호작용으로서 스트레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과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보아 개인의 심리과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관한 반응의 매개체로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은 환경의 자극요소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등도 환경의 주요한 일부분이 되며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이다(박장순, 2001).

Lazarus와 Folkman은 개인 자원이 모자라서 자신의 안녕이 위험하다고 평가 내리는 개인과 환경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스트레스로 보았으며 더 포괄적인 개념의 틀로서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 스트레스 개념을 확장하였다. 특히 스트레스를 어떠한 환경적 사건도 개인의 지각이나 평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관계론적 입장에서 하나의 자극이나 반응으로서 파악하지 않았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인 요구가 자신의 적응 자원보다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최혜림, 1986, p.14).

나.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는 장기간 지속 시 불안, 무기력, 우울증 등의 증세를 가져오며 심할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는 관심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바라보고,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개인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노력을 대처 또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라고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반응은 대체로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선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외적, 내적 요구를 관리하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

적, 행동적 노력으로 규정된다(Lazarus·Folkman, 1984). Lazarus는 긴장감소, 즉 평형의 회복을 스트레스 대처의 중요기능으로 보아 대처방안을 문제 중심의 대처, 정서 집중적 대처로 구분하였으며, Pakres는 집중적 대처, 억압적 대처, 일반적 대처로 분류하였다.

이 중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크게 문제 지향적 대처와 정서 지향적 대처로 크게 구분하는 대처양식 모델을 제안한 Lazarus와 Folkman은 문제 지향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는 노력이고, 정서 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는 행제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문제 지향적 대처에는 문제해결이나 개인과 환경과의 갈등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책략이 포함되는데 반해 정서 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나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처반응이다.

Frydenberg와 Lewis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추구, 문제해결에 초점, 근면과 성취, 걱정, 친밀한 친구관계, 소속감 추구, 소망적 사고, 사회적 활동, 긴장완화, 대처의 중지, 문제무시, 자기비난, 자신애의 몰입, 영적 지원추구, 긍정적 사고, 전문가 도움 추구, 이완적 기분 전환 추구, 신체적 여가활동 등 18가지의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신현숙·구본용, 2001, p194).

김정희(1987)는 Lazarus와 Folkman이 개발한 대처방식척도에 기초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 중심적 대처, 소망적사고 등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환경의 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말하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소망적 사고는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여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적지지 추구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이러한 4개 영역은 이들의 대처유형을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의 추구를 적극적 대처로, 이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소극적 대처로 나누었다.

다. 스트레스와 성격

성격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한 가운데, 영향력 있는 성격이론가들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의 내부에서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정신물리학적 체계의 역동적인 조직이라 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독특한 양식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박장순, 2002).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때 개인과 환경의 구체적인 상호역동 또는 일련의 상호역동 과정이 어떻게 스트레스 경험이 되며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인지적 평가와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구와 동반되는 스트레스 및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인 대처방식은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azarus, Folkman, 1983).

이러한 스트레스 개념은 스트레스 역동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4. MBTI와 스트레스대처방식 선행연구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성격유형을 살펴본 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MBTI를 사용한 비행청소년이나 재소자 대상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외국의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Lippin(1990)의 연구에선, 여성 수감자들은 I가 E에 비해 훨씬 많았고 약물과 관계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는 E가 더 많았다. 폭력범죄는 F보다 T가 더 많았고, 세 번 이상 범법을 한 재소자들은 IT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품행장애와 정서장애가 있는 고등학생들을 비교한 Kelly(1991)의 연구에서는 품행장애자들은 표준 집단에 비해 T와 IN이 의미 있게 더 많았고, SF는 더 적었다(심혜숙·김명권, 1998).

성격유형과 약물중독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약물범죄는 성격유형과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Bisbee 등(1982)이나 Dewinne과 Johnson(1976)은 E가 약물남용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것은 약물범죄가 E, ES, ESTJ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Lippin(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국내에선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비행청소년 215명을 대상으로 한 성격유형 연구가 김숙영(1994)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는 비행청소년 집단에서는 E, S, T, J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이 중 특히 E와 S의 경우 표준분포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고숙경(1994)은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경향과 MBTI의 성격유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P의 선호가 전반적으로 잠재적 비행경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여덟가지 선호 경향중에서 P에 대한 선호가 잠재적 비행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혜숙과 김명권(1996)의 연구는 전국적인 표집으로 총 612명의 비행청소년이 대상이었는데 E, S, T, P 모두 표준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ST(66%), SP(52%) 그리고 ESTP(23%)에 있어서도 표준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이 비행청소년 집단이 표준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성격이 다른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최여원(1994)은 학교부적응과 성격유형간의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 결과, 유기.무기정확을 당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경우 기질 면에선 SP가, 선호성에선 I보다 E, N보다 S, J보다 P에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며, 성격유형에 있어선 ESFP형과 ESTP형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활동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행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자들의 앞의 MBTI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I보다 E, N보다 S, F보다 T 그리고 J보다 P가 비행이나 학교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격유형 비교연구(김원예, 2001)에 따르면 16개 성격유형에 비추어볼 때 비행청소년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유형은 ESTP(21.7%)이고, 그 다음으로는 ISTP(16.3%), ESTJ(14.9%)의 순으로 그 빈도수가 높아 과반수 이상이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미만인 유형으로는 ENTJ(0.9%), INTJ(0.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INFJ형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를 네 가지 선호경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향형(I)보다 외향형(E)을, 직관형(N)보다는 감각형(S)을, 감정형(F)보다는 사고형(T)을, 판단형(J)보다는 인식형(P)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네 가지 성격기능별 분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ST, SF, NT, NF 순으로 그 빈도수가 높게 나왔으며 이중 ST형은 전체 비율 중 60.6%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절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NF형은 5.0%로 가장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가지 기질별 분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SP, SJ, NP, NJ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이중 SP형은 54.3%를 차지하였으며 NJ형은 4.1%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관련된 일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창대(1985)는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지향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문제 지향적 대처양식을 보였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차이가 있고 상호작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한(1992)은 사회성, 적응성, 명랑성, 안정성 등의 성격특성이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보다 잘 대처하고 적응성이 높다고 했다.

홍지영(1995)은 성격 유형의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지표와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지표는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지표는 문제 직면적 대처행동, 고통스런 문제해결, 분리적 행동, 사회적 지지추구, 긍정적 재평가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문제 지향적 대처와, 정서 지향적 대처, 전체 차원에서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지표는 고통스런 문제해결, 회피영역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에 따른 대처방식을 연구한 송혜숙(2000)은 내향형(I)보다 외향형(E)이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감정형(F)보다 사고형(T)이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판단형(J)보다 인식형(P)이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감각형(S)과 직관형(N)의 성격지표 간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이미숙, 2003).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에 따른 대처방식을 연구한 조원표(1997)는 내향형(I)을 가진 학생이 외향형(E) 학생보다 문제 지향적 대처의 소망에 의한 사고활동과 정서 지향적 대처의 자기비난 영역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성순(1999)에 따르면 외향형(E)보다 내향형(I)이, 직관형(N)보다는 감각형(S)이, 사고형(T)보다는 감정형(F)이 스트레스 하위영역과 관련이 더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에 있어서 외향형(E)과 내향형(I)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각형(S)과 직관형(N)에 있어서는 직관형(N)이 더 문제 중심적인 대처를 하고, 사고형(T)과 감정형(F)에 있어서는 사고형(T)이 문제 중심

적인 대처를 하고, 감정형(F)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영역에 높게 나타났으며, 판단형(J)과 인식형(P)에 있어서는 인식형(P)이 소극적 대처의 영역인 소망적 사고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MBTI 성격유형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산출되어 있는 가운데 뚜렷한 차이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MBTI 성격유형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MBTI성격의 대표적인 네가지 지표, 외부와의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가지는 고유한 반응양식에 따른 심리적 기능, 개인의 가시적인 여러 행동중에 내재하는 패턴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는 기질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들의 다양한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능력 정도를 살펴보고, MBTI 지표, 기능, 기질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위치한 J소년원에 입원 및 위탁 의뢰된 보호·위탁소년 및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육위탁 의뢰된 상담조사대상자와 일반학교에서 징계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후 J소년원 부설 청소년인성계발교육원에 위탁된 일반학교 학생 및 창원시에 소재한 C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 의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 중 11명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243명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였으며, 남·여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

	남학생	여학생	계
명(%)	184(75.7)	59(24.3)	243(100)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조사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 및 MBTI 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J소년원과 C센터에 위탁 및 교육 의뢰되어 온 위탁교육생에게 MBTI 검사를 1차적으로 실시한 이후 스트레스 대처방식 설문지를 2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이용하여 검사 및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알려주고 응답요령의 설명과 함께 남 195명, 여 59명 총 254명에게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의 성격유형론에 근거하여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심리유형검사를 심혜숙·김정택(1990)이 표준화한 한국판 성인용 MBTI GS용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Myers-Briggs가 제작하고 김정택·심혜숙(1990)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MBTI(GS)이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가 개발한 대처양식 척도를 기초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가 요인 분석한 것을 기본으로 중학교 수준에 맞추어 용어 설명을 변형한 신난수(2001)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MBTI 성격유형검사

현재 사용되는 한국어판 MBTI 검사는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채점용인 GA형과 자가 채점용인 GS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채점용인 GS형을 사용하였다.

나. 스트레스 대처방식검사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1985)에 의해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서 만든 6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문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초학력수준이 낮고 학업중단상태인 비행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 신난수(2001)가 중학생의 학력수준에 맞게 어려운 단어나 낱말, 애매한 문맥을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정서중심 대처 방식으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구분하며, 소망적사고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는 소극적 대처로 구분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스트레스 대처방식 신뢰도 검증

변인	요 인	문 항	Cronbach's α
적극적 대처	문제 중심적 대처(21문항)	1,2,5,6,9,19,22,25,28,29,33,34, 35,37,39,46,48,50,53,59,62	.77
	사회적지지 추구(6문항)	8,17,21,30,42,45	.64
	소 계		.72
소극적 대처	소망적사고 대처(12문항)	26,38,49,51,52,54,55,56,57, 58,60,61	.80
	정서 중심적 대처(23문항)	3,4,7,10,11,12,13,14,15,16,18,20, 23,24,27,31,32,36,40,41,43,44,47	.85
	소 계		.83
전체 스트레스 대처능력			.78

4. 분석방법

MBTI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설문지를 한 SET로 하여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에 걸쳐 J소년원과 C센터에 입원한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과 상담조사교육생과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처리는 연구 문제에 따라 연구대상의 16가지 성격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네 가지 성격지표(E-I, S-N, T-F, J-P)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분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네 가지 심리적 기능과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분석을 위하여 F검증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네 가지 심리적 기능과 기질별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모든 통계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비행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6가지 성격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연구대상자의 16가지 성격유형 분포(n=243)

단위 : 명(%)

ISTJ 5(2.1)	ISFJ 12(4.9)	INFJ 0(0)	INTJ 2(0.8)
ISTP 27(11.1)	ISFP 12(4.9)	INFP 2(0.8)	INTP 3(1.2)
ESTP 60(24.7)	ESFP 36(14.8)	ENFP 12(4.9)	ENTP 16(6.6)
ESTJ 39(16.1)	ESFJ 8(3.3)	ENFJ 4(1.7)	ENTJ 5(2.1)

<표 III-3>에서 나타난 비행청소년의 유형 분포도를 보면 ESTP 24.7%, ESTJ 16.1%, ESFP 14.8%, ISTP 11.1% 순으로 높은 분포도를 보였으며, ESTP, ESTJ, ESFP, ISTP 유형이 전체 비율중에서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 대상자인 비행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MBTI의 네 가지 성격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MBTI 네 가지 선호경향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독립표본 t 검증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가.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표 IV-1>에서 알 수 있듯이 t검증한 결과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t=1.43$ $p>.05$)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사회적 지지추구($t=1.9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나 친구 및 제3자의 도움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사회적지지 추구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V-1>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스트레스 대처방식($n=243$)

구분		E n=180		I n=63		t
		M	SD	M	SD	
적극적 대처	문제 중심적대처	2.27	.47	2.16	.38	1.73
	사회적 지지추구	2.24	.53	2.09	.49	1.95*
소극적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	2.37	.51	2.34	.48	.38
	정서 중심적대처	2.32	.36	2.28	.41	.64
전체 스트레스 대처 능력		2.30	.40	2.22	.35	1.43

* $p<.05$

나. 감각형(S)과 직관형(N)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표 IV-2>에서 알 수 있듯이 t검증한 결과 감각형(S)과 직관형(N)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t=1.88$ $p>.05$)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 대처($t=3.3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감각형(S)과 직관형(N)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으로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소망적 사고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V-2> 감각형(S)과 직관형(N)의 스트레스 대처방식($n=243$)

구분		S n=198		N n=45		t
		M	SD	M	SD	
적극적 대처	문제 중심적대처	2.26	.45	2.16	.46	1.35
	사회적 지지추구	2.21	.53	2.18	.50	.30
소극적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	2.41	.48	2.14	.56	3.30*
	정서 중심적대처	2.33	.38	2.24	.35	1.44
전체 스트레스 대처 능력		2.30	.38	2.18	.41	1.88

* $p<.05$

다. 사고형(T)과 감정형(F)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표 IV-3>에서 알 수 있듯이 t검증한 결과 사고형(T)과 감정형(F)의 전체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t=-.265$ $p<.05$)를 보였다. 특히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문제중심적 대처($t=-3.22$ $p<.05$)와 사회적지지 추구($t=-2.33$ $p<.05$), 그리고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 ($t=-2.99$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고형(T)과 감정형(F)에 따른 비행청소년들의 전체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환경의

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적응하려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친구 및 제3자의 도움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사회적지지 추구,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으로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소망적 사고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3> 사고형(T)과 감정형(F)의 스트레스 대처방식(n=243)

구분		T n=157		F n=86		t
		M	SD	M	SD	
적극적 대처	문제 중심적대처	2.17	.45	2.37	.44	-3.22*
	사회적 지지추구	2.15	.51	2.31	.53	-2.33*
소극적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	2.29	.50	2.49	.48	-2.99*
	정서 중심적대처	2.31	.38	2.31	.38	.06
전체 스트레스 대처 능력		2.23	.39	2.37	.38	-2.65*

*p<.05

라.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표 IV-4>에서 알 수 있듯이 t검정한 결과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t=1.63 p>.05)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문제중심적 대처(t=2.26 p<.05)와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 대처(t=2.42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큰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환경의 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적응하려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으로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소망적사고에서 차이가 있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V-4>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스트레스 대처방식(n=243)

구분		J n=75		P n=168		t
		M	SD	M	SD	
적극적 대처	문제 중심적대처	2.34	.44	2.20	.45	2.26*
	사회적 지지추구	2.27	.50	2.18	.53	1.26
소극적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	2.48	.40	2.31	.53	2.42*
	정서 중심적대처	2.28	.40	2.32	.36	-.90
전체 스트레스 대처 능력		2.34	.37	2.25	.40	1.63

*p<.05

2. MBTI의 네 가지 심리적 기능(ST, SF, NF, NT)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MBTI의 네 가지 심리적 기능인 감각적 사고형(ST), 감각적 감정형(SF), 직관적 감정형(NF), 직관적 사고형(NT)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5>와 같다.

<표 IV-5> 심리적 기능별 스트레스 대처방식(n=243)

구분		ST (n=132)	SF (n=67)	NT (n=25)	NF (n=19)	F	Duncan
		M(SD)	M(SD)	M(SD)	M(SD)		
적 극 적	문제 중심적	2.20(.45)	2.38(.43)	2.15(.53)	2.16(.38)	2.97*	SF>NT*
	사회적 지지	2.16(.51)	2.31(.56)	2.10(.50)	2.32(.48)	1.76	
소 극 적	소망적 사고	2.35(.48)	2.53(.46)	2.09(.62)	2.21(.50)	5.87**	SF>NT**
	정서적 중심	2.33(.38)	2.32(.38)	2.27(.38)	2.20(.33)	.766	
전체 스트레스 대처 능력		2.26(.38)	2.39(.38)	2.15(.45)	2.22(.36)	2.78*	SF>NT*

*p<.05, **p<.01

<표 IV-5>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적 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F검증한 결과, 성격기능에 따라 전체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F=2.87 p<.05)를 보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F=2.97 p<.05)에서, 소극적 대처에서는 소망적사고(F=5.87,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망적사고 사용 경향이 더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다.

네 가지 심리적 기능별 집단간 평균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감각적 감정형(SF)이 직관적 사고형(NT)보다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감각적 감정형(SF)과 직관적 사고형(NT)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3. MBTI의 네 가지 기질유형(SJ, SP, NT, NF)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MBTI의 네 가지 기질인 보호자적 기질(SJ), 장인예술가 기질(SP), 이상가적 기질(NF), 합리적 기질(NT)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를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MBTI의 기질별 스트레스 대처방식(n=243)

구분		SJ	SP	NF	NT	F	Duncan
		(n=65)	(n=135)	(n=18)	(n=25)		
		M(SD)	M(SD)	M(SD)	M(SD)		
적극적	문제중심적	2.34(.42)	2.22(.46)	2.19(.37)	2.15(.53)	1.57	
	사회적지지	2.24(.46)	2.19(.56)	2.35(.47)	2.10(.50)	.95	
소극적	소망적사고	2.50(.39)	2.36(.51)	2.24(.49)	2.09(.62)	4.59**	SJ>NT**
	정서적중심	2.29(.41)	2.34(.37)	2.21(.34)	2.27(.38)	.91	
스트레스 대처 능력		2.34(.36)	2.28(.40)	2.25(.35)	2.15(.45)	1.49	

**p<.01

<표 IV-6>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F검
증한 결과, 기질에 따라 전체스트레스 대처방식($F=1.49$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인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 대처($F=4.59$ $p<.01$)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소망적사고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보호자
적 기질(SJ)과 합리적 기질(NT)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으며 SJ형이 NT정보다 스트레
스 상황에서 그것을 유발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여 대
처하려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 가지 성격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t검정한 결과 외향형(E)과 내향형(I)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사회적 지지추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각형(S)과 직관형(N)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 역시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 대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형(T)과 감정형(F)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판단형(J)과 인식형(P)의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적극적대처의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극적대처의 소망적사고 대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 가지 심리적 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사고 대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네 가지 기질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인 소망적사고 대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몇 가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의 네 가지 지표와 관련하여, 조현희(2006)에 따르면 E형의 청소년이 I형의 청소년에 비해 적극적 대처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추구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I형이 표현을 자제하며 내부로 몰입하는 것에 비해, E형은 외부로 생각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폭 넓은 사회 활동과 자신이 가진 인간관계를 활용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의논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등의 활동으로 자신에게 닥친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 보았다. 이는 E형이 I형에 비하여 사회적지지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송혜숙(2000)과 조원희(2006)에 따르면 T형과 F형의 비교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미숙(2003)은 네 가지 성격지표에 있어서 E형과 I형, S형과 N형, J형과 P형 지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형과 F형 지표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결과와는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T형보다 F형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사고 대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적절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J형과 P형에 있어서 박장순(2002)과 김방희(2002)의 연구결과 따르면 J형이 P형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P형이 유유자적하고 느긋한 태도로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성향에 비해 J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속한 결론을 내리려는 성향이 문제 중심적인 대처방식을 더 선호함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성격기능에 따라 문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사고 대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성격기능에 따라 스트레스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 가지 기능과 관련하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원표(1997)는 네 가지 성격기능에 따라 문제 지향적 대처와 정서 지향적 대처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조원표(1997)에 따르면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수집, 판단과 결정, 생활양식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강화를 받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고 그 자체가 편안하다고 느낄 것이고, 이것은 다시 자신의 성격으로 일반화되어 그 사람의 특성을 이루고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행동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환경의 관련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소망적사고 대처가 네 가지 성격기능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장순(2002)과 조현희(2006)는 소극적 대처 중 소망적 대처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주었으나 각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숙(2003) 역시 중학생의 네 가지 성격 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성격기능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성격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 청소년비행요인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네 가지 성격기질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질별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소극적 대처 소망적사고($F=4.59$, $P=.00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보호자적 기질(SJ)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높았다. SJ(보호자적 기질)은 현실적 의사 결정자형으로서 외부행동에서는 판단기능을 사용하나 내부세계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사실(S)에 초점을 맞추는 기질로서 환경속에서 질서 정연한 것을 추구하고 조직적이고 신뢰할만하고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성격기질로 평가 될 수 있다. 이는 주입식 교육의 영향과 현재의 안정을 추구하는 기성세대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라 보여지며, 우리나라의 교사의 성격유형에서 46.3% 이상이 보호자적 기질(SJ)이며(김정택·심혜숙·제석봉, 1995) 일반고등학교의 많은 집단이 ISTJ유형과 ESTJ유형 즉, 모두 SJ기질(황정옥, 2001)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기질유형에 따른 적절한 청소년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 부적응과 성격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Keirseey & Bates, 1978)에서도 장인예술가적 기질(SP)이 더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서 자유스럽고 자발적이며 도구사용 능력이 뛰어난 기질특성에 맞추어 신선한 자극과 동기제공을 하여 준다면 훨씬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질 때 비행청소년의 E형보다 I형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움추구나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래관계형성이나 집단상담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지지를 추구할 필요성 있다. 그리고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 S형보다 N형이 어려움을 더 느끼는 가운데, 직관형(N)인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얽매이기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시에 J형이 P형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인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속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사회기술훈련 기회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성격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통계적인 차이를 통하여 원활한 청소년기를 위해서는 각 성격기능에 따라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격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가 청소년기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기능에 대한 이해가 일선현장에서는 필요하며 성격기능에 따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볼 때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감각적 감정형(SF)이 문제의 근원에 적극적으로 직면하여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반면에 직관적사고형(NT)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관적사고형(NT) 비행청소년들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을 인정해주고, 이러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교육현장분위기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일선현장에서도 성격기능에 따른 학생이해와 지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기질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기 스트레스 발생 및 대처방식에 따른 결과는 성격기질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네 가지 기질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크게 차이점이 없으며 적절한 청소년기 성장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단, 하위요인인 소망적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비행청소년의 성격기질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기질별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의 차이는 청소년기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호자적 기질(SJ)이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게 되는 상황과 사건에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상황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반면에 합리적기질(NT)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기질(NT) 비행청소년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인정하고, 발전적이고 비전이 있는 안목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교육현장의 이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분위기 형성이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을 낮추고 이들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부여는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제주지역과 창원지역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른다. 각 지역마다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으리라 보여지며, 본 연구의 방법은 질문지에 한정하여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응답에만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환경적 특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면접 또는 관찰과 같은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MBTI 지표, 기능, 기질에 따른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석을 목표로 하였으며, 위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MBTI 검사 결과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청소년비행의 관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 있다.

참고문헌

- 고숙경(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잠재적 비행경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숙영(1994). **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유형 분석**. *법무연구*, 21, p37-39 법무연수원.
- 김원예(2001). **MBTI를 통해 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격유형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택·심혜숙(1990). **MBTI의 한국 표준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3(1), p44-72.
- 김정택·심혜숙(1995). **MBTI 16가지 성격유형안내**. 서울 :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
- 김정택·심혜숙(1991). **성격유형검사의 한국표준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3(1), p44-72.
- 김정택·심혜숙(1993). **성격선호도 검사 박사학위논문 요약집**.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심혜숙(1995). **MBTI 성장프로그램 안내서**. 서울 :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
- 김정택·심혜숙·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 : 한국 심리검사 연구소.
- 김정희와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 7, p127-138. 고려대학교.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양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제한(1980). **청소년발달심리학**. 서울 : 세광공사, p13.
- 김주한(1992). **고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영(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평가와 대처 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장순(2001).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별 공업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영미(2001). 청소년 미혼모의 기질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제8권, p49.
- 신난수(2001).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현숙·구본용(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p194.
- 심혜숙·김명권(1998). MBTI에 나타난 비행청소년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p227-250.
- 이미숙(2003). 중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분석.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제28호. p126.
- 정성순(1999).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양식의 차이 분석 연구.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연집·박경·최순영 공저(1997). 현대인의 정신건강, p145, 서울 : 학지사.
- 조현희(2006). 고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여원(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공업고등학교 학교 학생의 부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림(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문제론, p238, 서울 : 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문제 유형분류체계 개발연구 VII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봉선(2009).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행동양식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일보사 연구 용역 비행청소년 보고서 : 신라대학교.
- 홍지영(1995).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ompas, B., Howell, D.&Phares, V.(1989), Perspectives on child behavior problems: Comparisons of children's self-reports with parent and teacher reports,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p68-71.
- Dewinne. R. & Johnson. R.(1976). Extraversion-Introversio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drug abus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744-746.
- Dubow, E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p52-64.
- Holmes & Rahe(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13-218.
- Keirsey, D. & Bates, M.(1978). Please understand me. Del Mar, CA:Prometheus Nemesis Books Co. 김정택, 심혜숙, 임승환 공역(1993).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한국심리검사연구소.
- Kelly.E.J.(1991). MBTI differences between Emotionally disurbed and Conduct Disordered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21. 13-22.
- Lazarus & Cohen(1979). Coping with the stress of illness. In G. C. Stone, F. Cohen. & N. E. Adler, Health psychology: A handbook. San Francisco: Jossey-Bass.
- Lazarus &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김정희 역(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대광출판사.
- Myers, I. B., & McCaulley, M. H.(1985). User's guide. 김정택, 심혜숙, 제봉석 공역 (1995). MBTI 개발과 활용. 서울:한국심리검사 연구소 p72.

<Abstract>

**The Stress Manage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s**

Kim, Mun Gwa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 Bong

By identifying personality styl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examining how they cope with stresses, so that can have further comprehension a character quality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intends to help instructors understand and guide juvenile delinquents into favorable direction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ddressed the following assignments:

First,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 in stress manage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ccording to 4 personality indexes of MBTI.

Secondly,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 in stress manage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ccording to 4 personality functions of MBTI.

Finally,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 in stress manage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s according to 4 personality temperament of MBTI.

The subjects were young boys and girls with commissioned education at court of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justice and school, the tools used at the study were MBTI test originally proposed and designed by Myers & Briggs based on Jung's Psychological Types, a questionnaire that was adjusted to their level on the basis of measure for stress management style as developed by Folkman & Lazarus, each stress management style according to 4 personality indexes, 4 personality functions and 4 personality temperament of MBTI was statistically processed with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ESTP type comprised the majority in the personality distribution of respondents, followed by ESTJ and ESFP, ISTP type in the ratio, Compared to the result of Korea-style MBTI Be standardized there is something of discrepancy. Differently Korea-style MBTI for sound youth Be standardized, findings on inquiry total 243 of the juvenile delinquents, To have a more than 65% at a total rate be full of understand general characteristic of research subject.

Secondly, as a result of determining the difference in stress management of respondents according to 4 personality indexes of MBTI,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tress management in the statistical level according to those personality indexes,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focused on problems of active disposal and wishful thinking of passive disposal of sub-elements.

So, but there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tress management in the statistical level according to those personality indexes, it was meaningful the importance in difference at pursuit of active disposal for personal and environmental problem and hope favorable state.

Third, as a result of determining the difference in stress management of respondents according to 4 personality functions of MBTI, it was foun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tress management in the statistical level according to those personality functions, also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focused on problems of active disposal and wishful thinking of passive disposal of sub-elements.

Fourth, as a result of determining the difference in stress management of respondents according to 4 personality temperament of MBTI,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tress management in the statistical level according to those personality temperament,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wishful thinking of passive disposal of sub-elements.

In conclusion, problem-focused coping, wishful thinking of sub-elements in the 4 personality indexes of MBTI had more or less relationship with stress management style of respondent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stress management in the statistical level according to those personality temperament,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wishful thinking of passive disposal of sub-elements. so that personality functions and personality tempera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s was significant difference at wishful thinking.

※ 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솔직하게 ○표를 해주세요.

번호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사건, 상황)를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해당 없음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아주 많이 사용
		①	②	③	④
1	스트레스 받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 다음 단계의 준비				
2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사건(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3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한다.				
4	시간이 지나면 사건(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그 사건(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을 얻기 위하여 협상 하거나 타협한다.				
6	잘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한다.				
7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도록 시도해본다.				
8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9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10	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다.				
11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12	운으로 돌린다.(때로는 운이 나쁠 때도 있으므로)				
1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생각)한다.				
14	내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5	보통 때보다 더 오래 잔다.				

번호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사건, 상황)를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해당 없음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아주 많이 사용
		①	②	③	④
16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를 낸다.				
17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18	기분전환이 될 수 있을만한 말을 자신에게 한다.				
19	그 사건(상황)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20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21	상담전문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22	인간적으로 꽤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23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다려 본다.				
24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				
25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26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27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 버린다.				
28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29	처음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30	문제를 구체화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31	잠시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서 기분전환을 한다.				
32	무엇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기분을 전환한다.				

번호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사건, 상황)를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해당 없음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아주 많이 사용
		①	②	③	④
33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해 보거나 매우 위험한 일을 감수한다.				
34	너무 서두르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직감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35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36	노래방, PC방, 오락실 등에 간다.				
37	해결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곳곳이 버티어 나간다.				
38	일어난 일이나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39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40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				
41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것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42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43	이 사건(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다.				
44	그 사건(상황)을 무시해 버린다.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45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군가에게 말한다.				
46	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하여 싸운다.				
47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48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전에도 비슷한 사건(상황)이 있었다.				
49	다음에는 일이 좀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번호	스트레스(사건, 상황)를 받을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는.....	해당 없음	약간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아주 많이 사용
		①	②	③	④
50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51	내가 한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 한다.				
52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애쓴다				
53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다.				
54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55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56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57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58	최악의 경우를 각오한다.				
59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60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따른다.				
61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62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순위의 해결책이라도 받아들인다.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